

월요광장

모락모락 고봉밥 한 그릇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며칠 전 한 공예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와 작품 이야기를 나누다 그가 제작한 선반장 위에 놓인 어머머한 사이인의 유기 그릇에 시선이 갔다. 그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가면 이 같은 밥 그릇에 담긴 밥을 대접받았다고 한다. 그걸 다 먹을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웃으며 조금 덜어 달라고 손사래를 칠 겨를도 없었다고 했다. 밥상에 밥이 오르는 순간 친구의 아버지께서 “어이 그것만 주면 쓰짓는가? 학생인 게 더 물어아제!” 하시며 친구 어머니께서 곧장 수발을 얹어 더 높이 쌓아 올린 고봉밥을 주셨다고 한다.

한 끼가 중요한 시절, 그 중심에 놓인 밥은 정성이자 정 의 표현이었다. ‘밥은 먹었나?’ ‘밥은 먹고 다니냐?’ 는 늘 주고 받는 인사말이었으며 식구로 인정하는 현대 의 자리에는 밥상이 빠지지 않았다. 반찬이 차려지고 마지막으로 상에 올라온 밥은 한 톨도 남김 없이 먹어 야 하는 복을 상징하는 귀한 밥이었다. 그런데 그런 고 봉밥이 사라졌다.

지금 MZ세대가 보면 용도조차 알지못할 만한 큰 밥그릇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에도 등장한다. 그

의 작품 ‘새잡’에는 어른 머리 크기만한 그릇에 담긴 밥 을 먹는 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밥그릇의 크 기에는 변화가 생겼고 할머니댁 또는 친구네에서 경험 한 감투처럼 올라간 밥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한 때 일인당 연간 소비량이 무려 약 136kg에 이른 적도 있었다는 쌀 소비는 해마다 감소하여 지난 30여 년 만에 무려 그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가파른 물 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쌀값만 폭락하는 이 기현상은 한 가지 요인만으론 설명하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여러 요인 중 쌀 소비량 감소 원인만큼은 식습관의 변화로 ‘2021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집밥 수요가 줄어들고 다양한 음식 배달과 외식을 통한 식문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의 경우 두 차례의 세계대전 직후 1950년대 외 인 사업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었다. 20세기 후반 전 쟁으로 남긴 폐허들이 복구되면서 경제상황이 호전되자 와인의 생산과 소비에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그 상황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일상의 중심이자 필수품 처럼 취급되어 오던 와인은 과거와 달리 물, 맥주, 콜라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음료들로 그 소비량에 엄청난 타격 을 입었다.

하지만 그런 위기를 기회 삼아 특권층의 전용물로 인 식되던 유럽 와인은 와인 문화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 리며 더 좋은 와인을 공급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더 큰 세상에서 대중화가 되었고 현재 우리 나 라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까지 사랑받는 주류가 된 것 이다. 과연 과거 위축되어가던 소비 환경에서 와인의

문화적 가치와 상품의 가치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발전 시키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와인이 이토록 전 세계 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

일본을 여행해 본 사람들 중에는 일본의 쌀밥이 맛있 었다는 경험을 갖고 있거나 좀 더 미식가라면 커피처럼 다양한 쌀을 보기 위해 쌀 상점을 방문해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유럽에 일반적으로 잘친 쌀을 ‘스시 라이 스’ 또는 ‘재패니즈 라이스’로 불리며 일본 쌀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이 쌀의 문화적 가치를 놓치지 않고 미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온 결과이다.

제마다 다른 자연 환경에서 자란 벼가 도정을 거쳐 밥 상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수많은 이들의 노고가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쌀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식재료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쌀 소 비가 줄어든니 무조건 더 먹자는 식의 홍보 영상으로 쌀 소비를 촉진할 것이 아니라 신석기 시대부터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우리의 쌀을 우리 생활의 근간 으로 이해하며 쌀의 가치를 문화적으로도 더욱 발굴하고 키워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이 같은 문화적 가치 접근은 쌀의 맛과 유통의 방식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쌀의 가치를 제고하는 교 육·홍보 사업을 개발하고 최신 소비 경향을 반영한 다 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유통을 확대하는데 새로운 원동 력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올해의 쌀값과 밥 한 공기 가치를 당장에 바꿔 줄 수는 없지만 머지않 은 미래에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수필의 향기

햇볕에 앉아



김향남  
수필가

창가에 앉아 별을 쬐다. 가을은 아직 청아한 바람과 따스한 햇볕을 온 세상에 뿌려주고 있다. ‘막바지 열매 들을 영글게 하시고, ...영근 포도송이가 더 온전하게 무르익게 하시고, 짙은 포도주 속에 마지막 단맛이 스 미게 하시려는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 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시려는가.

‘릴케’도 ‘김현승’도 햇볕을 사랑했음이 분명하다. 그들의 시는 이 맑고 따스하고 넉넉한 것에 대한 경애 와 사랑의 노래다. 변함없이 공평한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이며, 조용하고 평화롭고 눈부신, 단단하고 웅숭 깊은 것에 대한 찬미의 노래다.

노래는 늙지도 변하지도 않은 채 수많은 시간을 건너 와 지금 여기 우리 동네, 우리집 거실에도 참 따스하게 내려와 있다. 창가의 화초들에도, 강아지 ‘요기’에게 도, 그리고 고단한 내 어깨 위에도 맑고 환하게, 순하고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다.

건너편 숲에선 시냇물로 채색 작업이 한창이다. 저 양양하신 해님은 서산으로 넘어간 뒤에도 뜻밖의 후광 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듯이, 저 숲의 나무들도 저마다 노랗고 붉은 색채의 향연을 기막히게 펼쳐낼 것이다.

그럴 때면 세상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하늘은 맑고 햇볕은 따스하고 바람은 상쾌게 불고 있 다. 아파트 공터에 문득 익숙한 풍경이 보인다. 누구의 손길인지 고추며 토란대가 정갈하게 널려 있는 것이 다. 햇볕을 받아 반짝반짝 웃기가 돈다. 잃어버린 고향 을 만난 듯 정겹고 포근하다.

유년의 가을엔 늘 날개가 널려 있었다. 마당엔 타작 한 곡식들과 붉은 고추, 나뭇나뭇 썩어간 호박이, 장독 대 옆에는 뽕잎에 엮인 무청 다발이 꼬들꼬들 말라가고 있었다. 빨갛졸졸한 빨래들이 마르고 대웅에선 깊게 들 어찬 햇살에 사각사각 어둠이 말라 갔다. 습하고 눅눅 한 것들에는 햇볕만이 유일한 처방인 듯 요리조리 되작 되작 바지런히 말려졌다. 그리하여 향은 더 짙어지고 맛은 더욱 풍부해져 밥상 위의 별미가 될 수 있었으니, 그 알뜰하고 살뜰한 모습은 가을 하면 생각나는 가장 따스한 정경이다.

지금 저 속에는 햇볕도 바람도 웅골차게 스며들고 있 을 것이며, 포르릉 참새, 푸드덕 날아온 까치, 지저귀 는 새들의 소란도 고스란히 섞여들 것이다. 제 몸의 물 기를 싹 다 날리고 새로 맞은 것들을 고이고이 모셔들 것이다. 이윽고 다시 몸을 푸는 날이면 수줍고도 천연 스텝게 그 귀환을 알릴 것이다. 그날은 모이고 풀어내 는 것의 송고한 미덕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름 없는 기 부 천사의 선행처럼 몽롱한 감동을 맞보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면 밥상의 풍경도 잔치처럼 향긋하고 은성할 것이다.

햇볕에 나왔ая 있으니 나도 물기 여윈 고추처럼 투명 해지는 것도 같고 오장육부까지 고슬고슬해지는 것도

같다. 웅졸했던 마음이 스스로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됐지 무얼 더 바랄까 싶어지기도 한다. 더 갖 지 못해 안달하는 삶이었다는 것도 새삼 후회된다. 햇볕 속에 있노라니 말랑말랑 노근노근 욕심조차 없어지 는 듯하다.

견유학파(犬儒學派)로 불리는 그리스의 철학자 디 오게네스는 말 그대로 ‘개 같은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 다. 그는 개처럼 무욕(無慾)하고 자족(自足)하며 무치(無恥)한 삶을 추구했거니와 어떤 욕심도 내지 않고, 부와 명예와 권력 따위에는 관심도 없으며, 현재의 처 지에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배부르면 따뜻한 곳을 찾아 잠자는 것을 낙으로 삼고, 어떤 행위에 대해 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개와 같은 삶이었다. 가진 것 이라고 남부러운 옷과 지팡이밖에 없으며 나무통을 집으 로 삼아 살아가는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철학자 알렉산더의 호의를 주저 없이 물리쳤을 정도로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이었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 겠다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그렇다면 햇볕이나 가 리지 말아주소”라고 태연하게 응수했다고 하니, 그 배포가 부러울 따름이다. 그에게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와 권력은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것들은 한순간의 따 사로운 햇볕보다 못한 것이었다.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어버 릴 뻔한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햇볕에 앉아 네 다리 쪽 뺨은 견공(犬公)의 잠꼬대 와 함께 모처럼 ‘비옥한’ 시간을 즐기는 중이다. 디오게 네스에 비할 바는 전혀 아니지만, 이 따스하고 하염없 는 것의 은총을 조금은 알 것 같다.

기 고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가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전남대 객원교수

말을 주도적으로 잘하는 한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어느 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이유를 물었다. 모 입에 나갔는데 한두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자신은 기분이 언짢아 한마디도 안 하고 나와 버렸다고 했다. 그는 ‘나도 이제는 말을 줄여야겠다’고 했는데, 그 러면서 혼자 한 시간 가량 말을 계속했다. 그 모습을 보며 역시 말 습관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나는 모임에 갈 때마다 상대의 얘기를 경청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그런데 막상 가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 람을 만나면 경청의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대 화란 서로 말을 주고받는 일이다. 한 사람이 말하면 한 사람은 들어주고, 들어준 사람이 다시 말할 수 있도록 말을 멈춰야 한다.

에나 지극이나, 말이 많은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미국 정치가 벤자민 프랭 클린은 “못난 이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 쓸모 있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볼 테르도 “진절머리 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말하고 싶

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왜 말을 많이 할까?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거나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어서다. 자기를 낮 게 평가하지 않을까 두려워, 아는 것을 다 들려주려 한 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야 타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 다고 믿고, 그런 방식으로 내면의 불안함을 채우고 존 재감을 찾는다.

가나긴 말을 듣기에 정말 지루하다. 듣고 이해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 지칠 수 밖에 없다. 가능한 40 초 이내로 말하고, 그 다음엔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 는 게 좋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길게 말해도 말한 뜻이 상대에게 다 전달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상대가 내 말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7초라고 할 만큼 매우 짧다. 내가 말을 할 때 상대의 뇌는 단어와 제스처, 말투 등을 고려하면 서 자신의 방식대로 뜻을 해석한다. 그래서 말이 길든 짧든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걸 피하고 줄이기 위해 기 억해 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말할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해 보고 대화에 별로 기여할 게 없다면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말 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자신에게 묻는 틈을 가져야 한다.

둘째, 상대의 감정을 살펴야 한다. 옛 현인들은 굶주 린 사람 앞에서 음식 맛이 없다고 투정하지 않고, 아무 리 추운 겨울이라도 흠웃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춥다 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상대의 처지를 살피라고 가르쳤

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예의를 체화하고 있었다. 상대 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어떤 처지인지를 분간하지 못하 면 이야기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 친절하게 말해야 한다. 어떤 말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반응은 달라진다. 말에 욕설을 많이 섞어 쓰는 사람, 과격한 말을 즐겨 쓰는 사람, 아슬아슬한 농담을 즐기는 사람은 위태롭다. 남을 평가 하고 지적하는 일이 많은 사람, 남의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은 심각한 말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치려면 친절하게 말하기를 훈련해야 한다. 예 의를 갖추면 메시지 전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내 가 친절하고 예의 바른면 상대는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고 메시지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친절 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지 않던가.

사람은 친절에는 친절로 보답한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므로 상대의 자존심이 유지되게 말을 하고, 감정에 해를 끼치지 않 게 말해야 한다. 배려(Consideration)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필 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진실이라도 함부로 말 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말실수는 막을 수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센 사람, 말이 입밖에 나오 면 천둥치고 바람이 일 듯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욱 깊어 써야 한다.

社說

초유의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 근본 대책을

지난 주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 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들이 먹통이 되 면서 전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가족·친구 간 일상적인 연락이 어려웠고 업무·교통·금융 등 생활 전반이 멈춰서 큰 혼란 을 겪었다. 특히 카카오 T 앱을 사용하는 택시 기사들과 자영업자들은 결제 시스템 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생업에 막대한 피 해를 입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 쯤 카카오 등의 서버 장비가 설치돼 있는 경기도 성남시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16일 오전 8시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일부 기 능이 회복됐지만 완전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미지·동영상 파일 전 송, 카카오 T 택시 호출, 다음 메일 서비스 등은 여전히 불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대 형 업체들의 서버와 백업 시스템 관리 실 태에 허점이 드러났다. 카카오측은 사과문

에서 “모든 데이터를 국내 여러 데이터센 터에 분할 백업하고 있으며, 외부 상황에 따른 장애 대응을 위한 이원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단순한 화재에 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보면 신 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역대 최악의 인터넷 대란으로 국민의 삶은 곳곳에서 멈춰 섰다. 카카오는 올 들 어서만 벌써 다섯 차례나 오류가 발생했 다. 90% 가까운 시장 점유율 덕분에 얻은 ‘국민 메신저’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이 다. 카카오톡은 모든 서비스의 완벽한 복 구에 박차를 가해 근본적인 대비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내놓 아야 한다.

정부도 데이터 관리에 취약성을 드러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톡 아니라 대 형 온라인 업체들의 서비스 운영 실태와 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 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 해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시험지 유출 의혹 구조적 문제 살펴야

광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지 문제가 밖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과목의 문항 절반가량이 인근 학원에서 사전에 배포한 문제지와 같거나 비슷하게 출제된 것이다.

광주시 북구 모 사립 고교 학생과 학부 모들은 “지난 4월 2학년 중간고사 ‘독서’ 과목 시험 문제지에 실린 총 23개 문항 중 13개가 인근 학원에서 배포한 시험 대비 문제지와 똑같았고, 서술형 6개도 유사했 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 다. 학교 측의 자체 조사에서도 해당 시험 문항 중 최소 13개가 학원 문제지와 같았 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 문항은 국어 교사 두 명이 나눠 출 제했는데, 문제가 된 13개는 기간제 교사 A 씨가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출제 기간이 촉박해 인터넷 사설 문제는 행 사이트에 올라온 문항을 그대로 출제 했는데 같은 문항이 학원 자료에 들어 있 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에

학교 측은 해당 과목의 재시험을 결정했 다. 다만 학교 측은 “학부모가 제기한 특 정 학원과 거래 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 장이다.

교사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 할 수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에 게시된 문 항을 내신에 반영되는 시험에 활용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한두 문 항이 아니라 문제의 절반이 학원의 문제 지와 똑같은다는 점은 더욱 그렇다. 그럼에 도 학교 측은 시험 문항을 유출한 학원이 어디인지, 해당 문항을 접한 학생이 몇 명 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측에 수사 의뢰를 권고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광주 지역 고교에서는 시험지 유출과 출제 오류가 있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고사 및 내신 관리 체계에 구 조적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 전면적 인 쇄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올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프랑스 출신 아나 에르노(82)는 이색적 인 작가다. 현대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그녀는 ‘체험하지 않는 것은 결코 쓰지 않 는다’는 독특한 창작관을 견지한다. 소설 이란 허구(fiction)와 현실(reality)이 결합된 산물이라는 점에서 보면 에르노의 관점은 다분히 도발적이다.

에르노는 노르망디 소도시에서 작은 식 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 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다분히 궁핍했던 것 같다. 다락방에서 추

데 수상자인 윌리 프리둠을 비롯해 1915 년 ‘장 크리스토프’의 로맹 롤랑, 1947년 ‘좁은 문’의 앙드레 지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57년에는 부조리한 인간의 내 면 세계를 탁월하게 그렸던 ‘이방인’의 저 자 카뮈가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그러나 실존주의 철학으로 유명했던 장 폴 사 르트르는 문학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수상(1964년)을 거부했다. 그리고 이번 에르노의 경우는 프랑스 문 학 사상 첫 여성 작가의 수상이라는 점에 서 의미가 남다르다.

노벨상 계절이 돌아오 는 10월이면 스웨덴 한 림위원회 세계인의 시선 이 집중된다. 그때마다 한국인 노벨상 수 상자도 있을 지 모른다는 실낱 같은 기대 를 하기도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가능성 이 높은 분야로 문학이 꼽혔지만 ‘미투 사 태’ 이후로는 후보에도 거론되지 않고 있 다. 문학이 모든 예술의 기초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제다. 어쩌면 세계에 불고 있는 K문화 돌풍이 사실은 K문학 이라는 원소스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 았을까 싶다.

/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 skypark@

노벨 문학상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